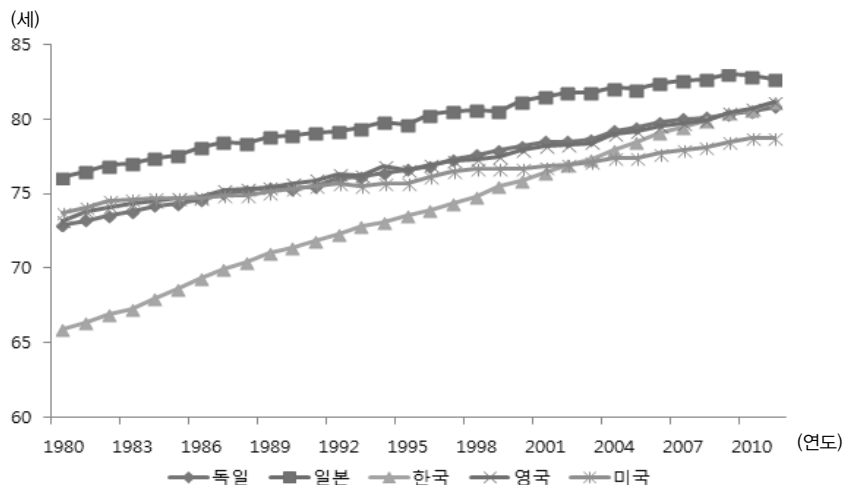


Ⅱ. 고령화와 보험산업 현황

1. 인구구조 변화

-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77.6세, 여자 84.5세이며,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- 1980년 65세 수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남녀합산 평균 기대수명은 2008년부터 80세를 넘어서고 있으며,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기대수명은 남자 77.6세, 여자 84.5세임.
- 현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영국, 독일과 유사하고 미국보다는 높으며, 기대수명 증가 속도는 이들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남.

그림 Ⅱ-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기대수명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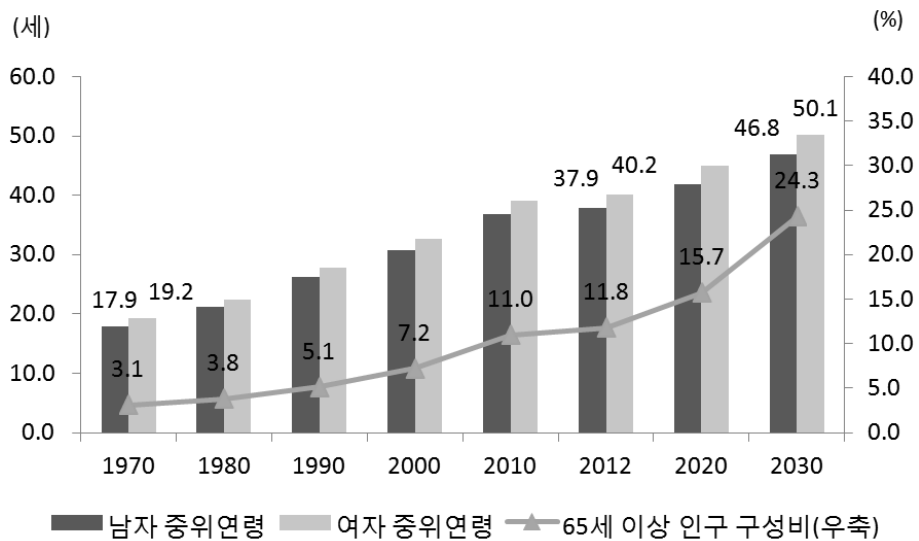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.

■ 기대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.

- 합계출산율은 2010년 1.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이에 대한 기회비용 확대 때문으로 풀이됨.
-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중위연령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 현재 남자 37.9세, 여자 40.2세에 이르고 있으며, 2012년 현재 11.8%인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30년에 24.3%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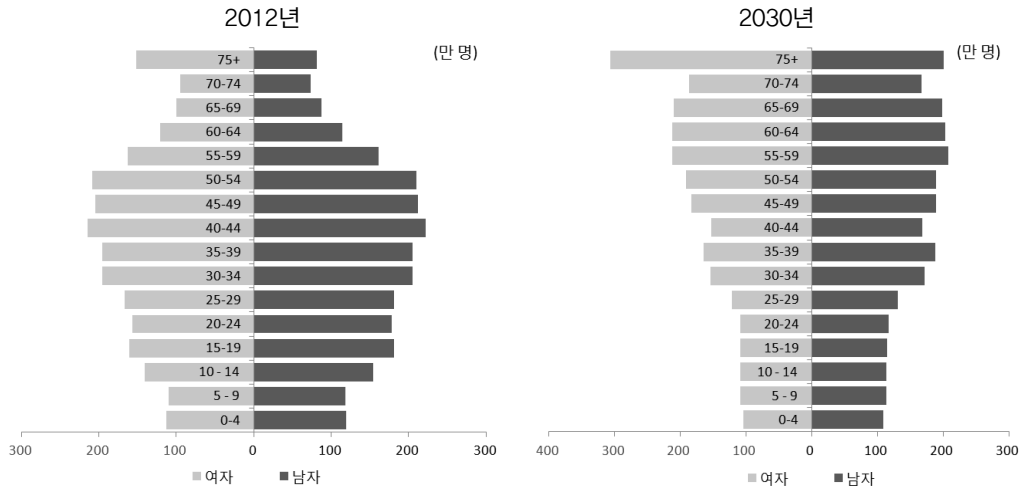
그림 II-2 연도별 중위연령 및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



자료: 통계청.

- 통계청에 따르면 중간 연령대인 35~44세 연령층 인구는 2008년 약 857만 명을 기록한 후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약 67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함.

그림 II-3 인구구조 변화 추이



자료: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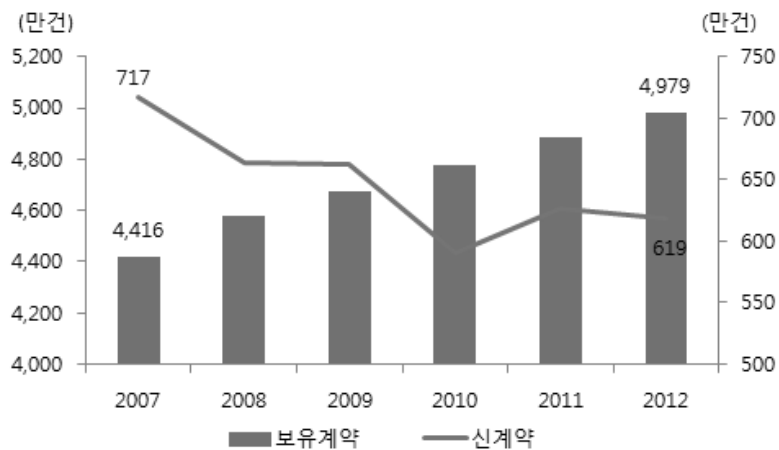
2. 보험계약 구성 현황

- 인구구조 변화는 주로 20~50대 연령을 가입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해 온 보험 회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.
 - 암보험 상품과 같은 사망 이외의 보장성 보험상품들은 가입 연령이 주로 60세 이하였으나,
 - 최근에서야 고연령층 증가와 이들 수요에 맞추어서 가입 연령이 75세인 암보험 상품 등이 판매되기 시작하였음.
-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보유계약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신계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.
 - 보유계약은 2007년 약 4,416만 건에서 2012년에는 약 4,980만 건으로

13% 증가하였으나, 신계약은 2007년 약 717만 건에서 2012년 약 619만 건으로 14% 감소하였음.

- 상품별 신계약 건수는 암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8%, 46% 증가하였으나,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은 50% 이하로 감소하였음.
- 상품별 보유계약 건수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만이 각각 4%, 21% 감소하였음.

그림 II-4 신계약 및 보유계약 건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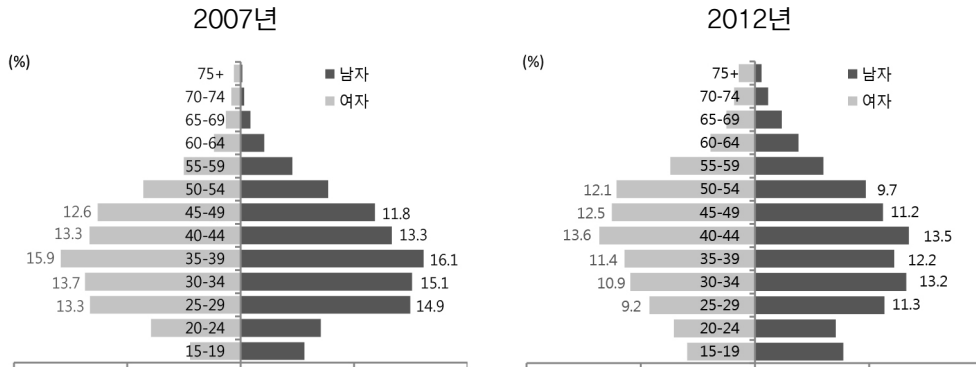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보험개발원, 생명보험 통계자료집, 각 연호.

■ 신계약에서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30~40대가 주요 연령층이나 비중은 감소 추세임.

- 2007년 신계약에서 30~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녀 각각 56.4%, 55.5%이나 2012년 남녀 각각 50.1%, 48.5%로 감소함.

그림 II-5 연령별 신계약 비중 추이



자료: 보험개발원, 생명보험 통계자료집, 각 연호.

■ 인구구조 변화는 상품계약 구성에 영향을 주어 주 고객층인 30~40대의 신계약 건수가 2012년에는 2007년 대비 남녀 각각 25.1%, 23.1% 감소함.

- 30~40대에서 신계약 건수는 2007년 남녀 각각 약 2백만 건이 체결되었으나, 2012년에는 남녀 각각 140만 건과 160만 건만이 체결됨.
- 30~40대의 신계약 건수 감소는 2008년부터 진행된 이들 집단의 인구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임.
- 연금보험의 경우 2007년 대비 2012년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23.9%, 22.6% 감소하였으나, 종신보험의 경우 남녀 각각 3.0% 증가, 3.2% 감소로 큰 변화가 없었음.
- 상해보험의 경우 2007년 대비 2012년도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65.8%, 58.8% 감소하였고, 질병보험의 경우에도 남녀 각각 39.6%, 40.8% 감소함.
- 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대비 2012년도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80.3%, 77.0% 급감하였으나, 같은 기간 암보험의 경우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2.5% 감소, 42.9% 증가함.

- 반면, 60세 이상 신계약 건수는 2007년 남녀 각각 약 12만 건, 19만 건이 체결되었으나 2012년에는 남녀 각각 23만 건, 32만 건이 체결되어 2007년 대비 95.3%, 68.7% 급증함.
 - 연금보험의 경우 2007년 대비 2012년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94.5%, 110.2% 증가하였고, 종신보험의 경우에도 남녀 각각 104.0%, 85.7% 증가함.
 - 상해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2007년 대비 2012년 신계약 건수가 남녀 각각 80.9%, 64.7% 감소하였으나,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신계약 건수는 남녀 각각 110.7%, 82.2% 증가함.
 - 2007년 대비 2012년도 신계약 건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남녀 각각 24.1% 증가, 17.7% 감소하였고, 암보험은 남녀 각각 809.1%, 1119.3% 급증함.

3. 상품개발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보험상품 개발은 대부분 30~4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은 일부 소개되고 있는 상황임.
 - 사망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 가입 연령은 60세 이하이며, 주 가입 연령대는 30~40대임.
 - 기존 보험상품은 고연령 가입자가 고혈압, 당뇨와 같은 질환 등으로 일반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어서 가입이 어려웠음.
 - 최근에 들어서야 언더라이팅을 완화한 고령층 전용 보험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음.

-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요율의 불안정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상품개발이 어려움.
 -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보험회사들은 충분한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음.
 - 또한 미래의 보험요율 변동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높은 점도 상품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함.

-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주 소비층인 30~40대 인구가 감소하는 200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으며, 이를 벗어나려면 고령층에 대한 시장개척이 필요할 것임.
 -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우체국과 수·축협을 포함하는 전체 생명보험의 경우 86.6%이며, 2003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표 II-1 생명보험 가입률 추이

(단위: %)

| 설문연도 | 1988 | 1991 | 1994 | 1997 | 2000 | 2003 | 2006 | 2009 | 2012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민영 생명보험 | 32.8 | 37.8 | 50.9 | 69.2 | 81.9 | 85.4 | 85.7 | 84.5 | 83.6 |
| 우체국 | 2.8 | 3.2 | 2.9 | 4.1 | 6.4 | 13.4 | 15.8 | 13.1 | 16.0 |
| 수·축협 | 2.3 | 2.4 | 7.2 | 7.9 | 9.9 | 10.2 | 9.0 | 9.0 | 5.2 |
| 전 생보 | 36.4 | 40.3 | 57.8 | 73.7 | 86.2 | 89.9 | 89.2 | 87.5 | 86.6 |

자료: 생명보험협회, 생명보험성향조사(2012).

- 생명보험회사가 높은 가입률과 침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이며, 인구구조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 시장 개척이 요구됨.